

불교대학을 찾아서

⑨ 익산불교대학

미륵사지 등 찬란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제의 고도 익산. 익산은 백제불교의 역사와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해 왔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백제 불교의 찬란한 전통도 빛이 바랜 상태다. 전국 도시 중 2~3번째로 높은 개신교인 비율, 익산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발전 등에 가려 익산 불교의 모습은 밝은 편이 아니다.

타종교의 기세에 눌려 침체된 전북 불교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 불자들이 익산 불교를 되살리자며 발원한 것이 익산불교대학(학장 지장, 관음사 주지) 태동의 계기다. 91년 당시 도심포교당인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던 일화스님(전 조계종 사회복지장은 이러한 불자들의 뜻을 모아, 관음사 내에 익산불교대학을 개설했다. 현재 불교대학이 사용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은 98년에 완공된 것.

91년 익산불교대는 150여명 불자의 신청을 받아 불교 교육을 시작, 92년에 첫 졸업생인 91명을 배출했다. 93년부터 불교과와 법사과로 학제를 확대 개편했고 현재는 12기생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40여 명인 익산불교대 12기생들은 지난 1학기동안 <불자의 자세와 행동> <사찰과 숭보문화>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적인 삶> <반야심경>의 다양한 영역을 급산사 총무국장 일화스님, 동학사 강주일

초스님과 지역 포교사인 이원일, 이택회 포교사 등을 통해 배웠다.

익산불교대학은 3년전부터 독특한 운영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당시 관음사 주지로 갓 부임한 지장스님은 익산불교대학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불교대학으로 바꿔놓았다. 이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후원이사제도'다.

익산 지역 사찰, 불자들에게 익산불교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후원이사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후원이사제도의 골자. 재정 마

“익산불교 되살리자” 발원, 91년에 대학설립 후원이사제 도입 지역공동체와 함께 운영 졸업생중심 ‘천천마한 클럽’...실천불교 모색

련을 물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후원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해, 불교대학은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재고하게 됐다. 또한 익산불교대학이 지역 사찰의 신도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함으로써 익산 불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익산불교대학만의 또다른 특징은 천천마한클럽, 천천마한클럽은 올해 초부터



◀익산불교대학장 지장스님(사진 왼쪽)이 2000년 9기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있다.

익산불교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원봉사 모임이다. 1천명이 매일 1천원씩 모아 익산 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으로, 현재 회원은 600여 명 정도다.

천천마한클럽이 발족하게 된 것은 단순히 불교공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으

로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지장스님의 생각 때문. 스님은 불교대학 졸업생들에게 노인정, 고아원,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천천마한클럽 회원들이 모여 매달 첫째 월요일 법회를 병행하고, 산행, 108사찰 탐방을 전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r.mok@buddhapa.com

초등학교교장 경험 불교대학운영 회향

6기졸업생 김한철 포교사



“평생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얻은 경험을 불교대학운영에 바치고 싶습니다.”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종사

한 김한철(사진) 포교사는 96년 익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한편 97년 제3회 포교사 교시에 합격해 활동 중이다.

장년퇴임을 한 99년부터 지장스님을 도와 익산불교대 사무처장과 천천마한클럽 사무총장, 108사찰 순례단 단장등을 겸임하며 익산불교대학 불자들을 이끌고 있다.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9> 룡다

산촌에 펼쳐지는 마음 파고드는 ‘깃발’ 빛바래고 해졌지만 기다림·희망 담겨

시 아침을 맞이하는지 모른다. 잔스칼에서, 라울 스피디에서, 칸젠중가 남쪽 산록에서, 랑탕 히말과 가네시 히말에서, 그리고 히말라야 끝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티베탄 난민촌에서, 저마다 다른 수많은 룡다들이 슬프고도 아름답게 펼쳐진다.

룡다가 맨 처음 내 눈에 들어온 때는 10여 년 전 겨울 아침, 네팔의 랑탕 히말과 가네시 히말 사이에 있는 티베탄 난민촌이었다. 밤중에 내린 폭설이 판자집 지붕을 하얗게 덮었는데, 그 눈이 녹수가 되어 방울방울 주렁주렁 빛나는 처마 밑에 마

을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다. 티벳에서 설산을 넘어왔다는 노인들도 있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여윌었고, 험뻣었으며, 더러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들의 미소는 슬프도록 맑았다. 그런 사람들과 풍경을 싸안고 일경을 이룬 언덕 위의 남은 사원에서는 짓은 룡다들이 문풍지 우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펼쳐지고 있었다.

룡다가 펼쳐지면 그 마을 티베탄 난민들처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피붙이들끼리 붙어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히말라야를 방랑한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간절한 무엇이 뒤죽박죽 파묻혀 버린 추억 속을 방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방랑이었기에 룡다는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펼쳐졌던 것이리라.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지하단칸방 생활 14년 앓은뱅이 할아버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감옥살이. 벌써 2년째다. 창살과 간수만 없지, 감방이나 다름없다. 발밑에는 요강, 그 옆엔 휴지...

김태억 할아버지(70, 한 쪽 다리가 없다. 두 팔이 다리 역할을 대신한다. 시헛말로 ‘앓은뱅이’, 이것이 김 할아버지에 따라다니는 꼬리표이다.

재작년 6월, 김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멀쩡하기만 했던 다리였다. 가끔 저렸던 것을 관절염 때문일 거라고 막연히 믿었다. 하지만, 다리는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찾아갔던 병원, 급히 절단해야만 살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만을 들었다. “어이없이 다리를 잘라냈어. 그때 생

왜 그 때 살았나 싶어. 그저 다리 잘리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사실, 김 할아버지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다. 젊었을 땐, 자동차 공장 경비일을 하면서, 남들 먹고 사는 만큼은 살았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아내 이삼씨(66)가 앓고 있는 심장병과 척추병은 집안 살림을 언제나 조롭게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의 ‘송장’을 치를 준비를 하라며 난리들이었다. 그래도 일을 제쳐 두고 아내의 간병에 매달렸다. 지금은 아내가 조금 나아져 병원에 힘겹게 약 타러 다닐 정도는 된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아내의 수발을 기대조차 못한다. 이러다보니 마흔 다

한쪽다리 절단·침수피해 3번 죽을고비 아내는 심장병, 두아들 집나가 소식 끊겨



◀절린 다리의 허벅지를 매만지며, 수해현장을 보도하는 텔레비전을 보고있다.

각만 하면 기가 막혀. 마취가 풀리자 잘린 다리를 보며 ‘이제 병신이 됐구나!’ 하고 한탄만 했다. 잘린 다리를 의사가 보여줄 땐 역사가 무너지더군.”

기막힌 사연은 또 있다. 보증금 6백만 원에 월 10만원의 사글세 지하 단칸방. 이곳에서 14년을 살면서 침수피해만 세 번을 당했다. 지난해에도 방안은 온통 물난리라는 소식, 눈을 못 떴다. 지물난리였다. 하수관이 역류해 갑자기 물이 들어 닦친 채, 목까지 차올랐다. 물위에 동동 뜬 채로 손이 발이 되어 가까스로 헤엄쳐 빠져나왔다. 아내는 식당일하러 나간 바람에 도와주는 이도 없었다. 죽을, 눈앞을 스쳐지나가는 듯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길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차라리

돼서 얻은 아들 들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만족해야 했고, 조물리는 가정 형편은 아들들을 가둘게 했다. 지금은 연학도 없는 아들들. 김 할아버지는 오히려 ‘속 편하게 산다’며 미소로 고개를 내저었다.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원으로 이들 노부부가 한달 생계를 꾸려간다. 하지만 공과금이며 술술치 않게 들어가는 생활필수품 구입에는 항상 빠듯하다. 더더욱 끼니며 빨래며 살림살이는 아내 이씨가 힘겹

게 하고는 있지만, 김 할아버지의 목욕, 수발에는 힘이 부치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콘을 집어든 김태억 할아버지. 바깥세상과 유일하게 통하는 동료인 텔레비전을 켜다. 틀자마자 수해속보가 생동하게 방안을 울려댄다. 전국이 온통 물난리라는 소식, 눈을 못 떴다. 지난해 여름일이 생각난 걸까? 김태억 할아버지의 마음은 또다시 심란해진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장외3동 307-65 지층
전화번호: 02912-1526
후원계좌: 주택은행 436325-95-105176(예금주: 김태억)

김철우 기자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습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바꾸어 준다.

출시 품목 (화장품)

- ◆ 안방에센스 크림 ◆ 안방베이스 크림 ◆ 안방미백크림
- ◆ 안방 아이크림 ◆ 안방 영양크림 ◆ 안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 (비누)

- ◆ 서시안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안방비누(피지 제거용)
- ◆ 수다라안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 한방 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 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종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중구곡”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뭄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 (식품 / 향)

-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 한방 바이오
www.hrbio.com